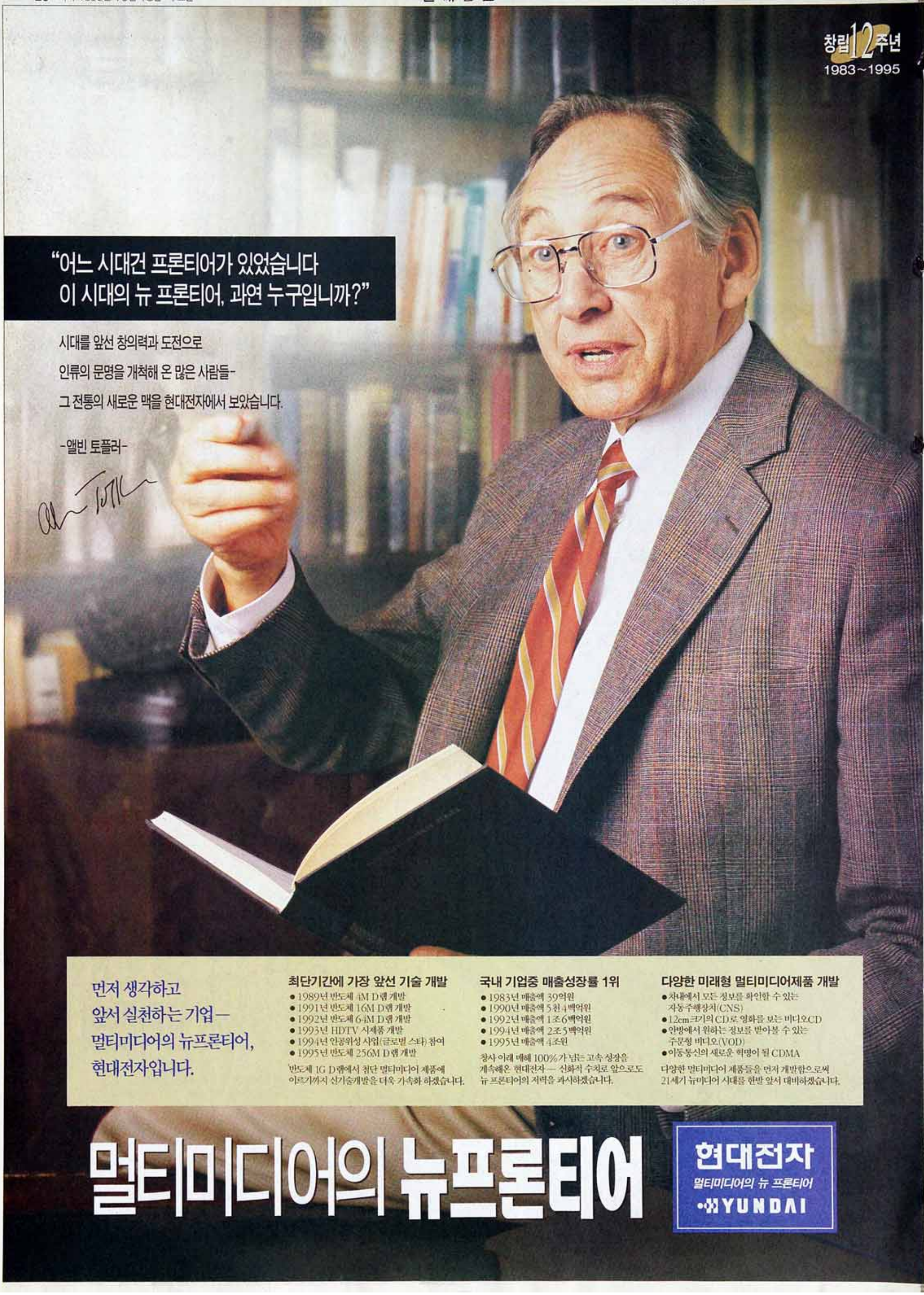

창립 12 주년
1983~1995
"어느 시대건 프론티어가 있었습니다
이 시대의 뉴 프론티어, 과연 누구입니까?"
시대를 앞선 창의력과 도전으로
인류의 문명을 개척해 온 많은 사람들-
그 전통의 새로운 맥을 현대전자에서 보았습니다.
-앨빈 토플러-
먼저 생각하고
앞서 실천하는 기업—
멀티미디어의 뉴프론티어,
현대전자입니다.
최단기간에 가장 앞선 기술 개발
● 1989년 반도체 4M D램 개발
● 1991년 반도체 16M D램 개발
● 1992년 반도체 64M D램 개발
● 1993년 HDTV 시제품 개발
● 1994년 인공위성 사업(글로벌 스타) 참여
● 1995년 반도체 256M D램 개발
반도체 1G D램에서 첨단 멀티미디어 제품에
이르기까지 신기술개발을 더욱 가속화 하겠습니다.
국내 기업중 매출성장률 1위
● 1983년 매출액 39억원
● 1990년 매출액 5천4백억원
● 1992년 매출액 1조6백억원
● 1994년 매출액 2조5백억원
● 1995년 매출액 4조원
창사 이래 매해 100%가 넘는 고속 성장을
계속해온 현대전자 — 신화적 수치로 앞으로도
뉴 프론티어의 저력을 과시하겠습니다.
다양한 미래형 멀티미디어제품 개발
● 차내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
자동주행장치(CNS)
● 12cm크기의 CD로 영화를 보는 비디오CD
● 안방에서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
주문형 비디오(VOD)
● 이동통신의 새로운 혁명이 될 CDMA
다양한 멀티미디어 제품들을 먼저 개발함으로써
21세기 뉴미디어 시대를 한발 앞서 대비하겠습니다.
멀티미디어의 뉴프론티어
현대전자
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
HYUNDAI